해외의약뉴스

대학생의 17%가 ADHD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

저자: James McIntosh

개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많은 압력을 받게 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학생들은 그러한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문헌고찰 결과, 6명의 대학생 중 1명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해 처방되는 각성제 약물을 오용하고 있다고보고되었다.

키워드

각성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물의 오용 및 남용, 리탈린, 애더럴

리탈린과 애더럴을 포함한 이러한 일반적인 약물들은 코카인과 메탐페타민과 같은 물질과 동일한 법적 범주에 해당하는 2급 지정 규제 물질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17%는 건강 문제뿐 만 아니라 법적 문제 위험에도 처해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USC)의 연구 저자인 Kari Benson은 대학 2학년시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아동의 사회적 감손을 연구하다가 이 약물남용 문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그들에게 애더럴 또는 리탈린을 얻어 줄 수 있는지 묻곤 했었다."라고 Benson은 말했다. "나는 이것이 캠퍼스에 꽤 널리 퍼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동료들보다 주의를 기울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좀 더 행동과잉을 보인다. 각성제는 ADHD를 가진 사람들에 집중하고 진정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정제 또는 캡슐의 형태 로 매일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된다. ADHD 증상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성제는 자아 존 중감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국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NIDA)에 따르면, ADHD 약물 치료가 개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성을 촉진하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ADHD가 없는 사람들이 복용하였을 경우에 학습이나 사고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대학의 ADHD 약물 오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양하다. "개별 연구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대학생 오

용의 비율이 도처에 널려 있다."라고 연구 저자 교수 Kate Flory는 말한다. "그들의 범위는 2%에서 43%까지입니다." 결국, 저자는 30개의 연구로부터 데이터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친구들로부터' 2급 지정 규제 물질을 구했다.

연구자들은 대학생의 17%가 ADHD를 위한 각성제 약물을 처방전 없이 복용하거나, 규정보다 다량으로 복용하는 오용을 발견했다.

오용에 대한 주된 이유는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부실한 학업 성적과 ADHD 약물 오용 사이에는 일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했다.

각성제 ADHD 약물은 오락(기분전환)에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약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학생들이 음주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정상한계를 초과해 음주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라고 Benson은 설명한다. "그래서 술에 취해 기절하는 대신에, 당신은 결국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는 처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NIDA에서는 각성제의 남용이 수많은 다른 유해 건강 영향, 영양실조, 적대감, 편집증, 그리고 극단적 상황에서는 뇌졸중을 포함한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각성제 ADHD 약물의 가장 일반적인 원천은 친구들 사이이며, 이는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에서 이러한 약물을 공유하는 학생들의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30개 연구의 질적 검토는 사교 클럽과 남·여학생 클럽 회원, 학업 성적 및 기타 약물 남용과 관련이 있음을 또한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에게 있어 이 연구의 다음단계 목표로 -임상 아동 및 가족 심리학 리뷰에 개제되었던 것처럼-그들의 연구 결과를 약물남용 중재 프로그램의 대상인 학생 특성을 식별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약물 남용 예방 교육 사무실이 있고, 처방 약에 초점을 맞춘 그룹이 있다."라고 Flory는 말한다. "우리는 대학에 중재를 실제로 할 수 있게끔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로부터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여기 USC 연구원에서 다 분야의 연구원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 그룹을 결성하였다.

지난해 Medical News Today는 때때로 각성제 약물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예상한대로 뇌 활동에 손상이 온 것으로 보고하였다.

● 원문정보 ●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290717.php